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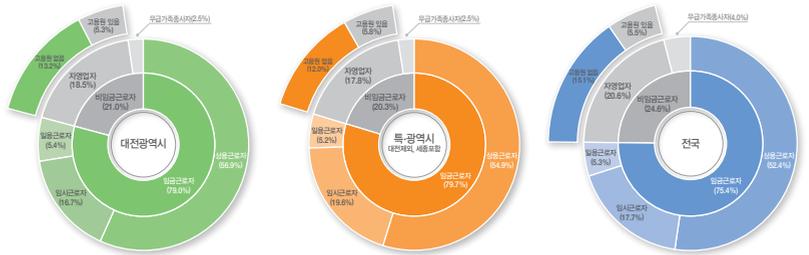


# 대전광역시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

자영업자, 1-4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임시직·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 01 대전광역시 자영업자 현황

- 대전광역시는 다른 특·광역시 평균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임
- 고용원을 두고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형편이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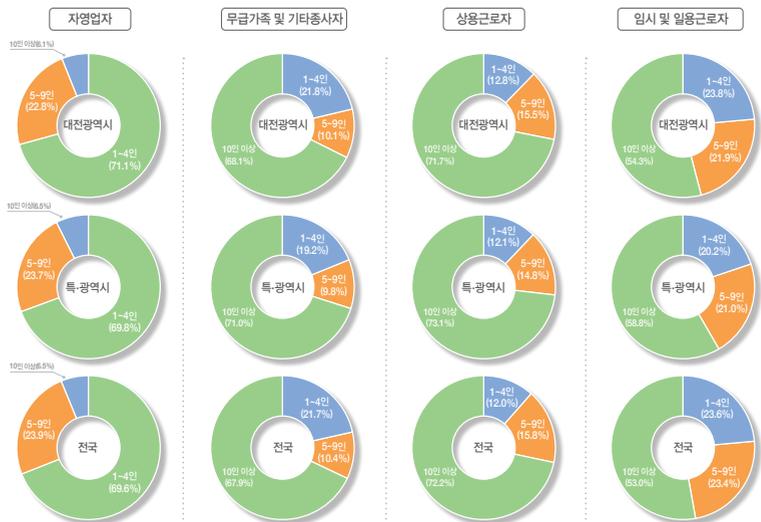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비중(2019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



(대전광역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 추이 (2010-2019년))

- 전국 및 특·광역시 대비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기타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음
- 1-4인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특·광역시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음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종사자 비중(2018년))

● 전체 사업체 중 자영업자가 속한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광역시 사업체 및 소상공인 비율 (201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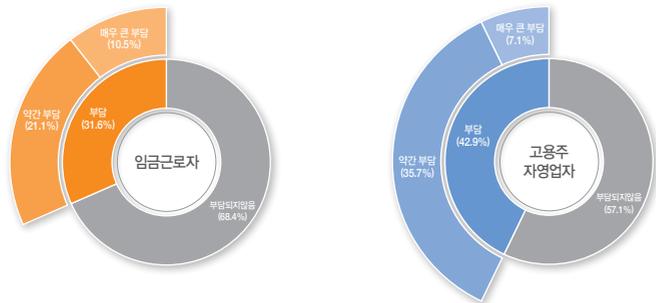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의료비 부담률 현황

- 대전광역시의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의료부담이 높은 편임
  -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임금근로자보다 개인별 소득수준은 낮고, 입원일수와 의료비는 많아 의료서비스 형편이 나쁜 상황
  - 이는 1~4명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와 임시직·일용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나 정규직 근로자보다 의료서비스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자리유형		종업원수		종사상지위			
	고용주·자영업자	임금근로자	10명 이상	1~4명	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소득(천 원)	25,017	28,122	25,946	32,657	54,810	29,176	16,520	10,731
의료비(천 원)	846	656	552	701	523	526	657	829
입원일수(일)	14.4	8.8	9.0	7.3	5.8	15.0	11.8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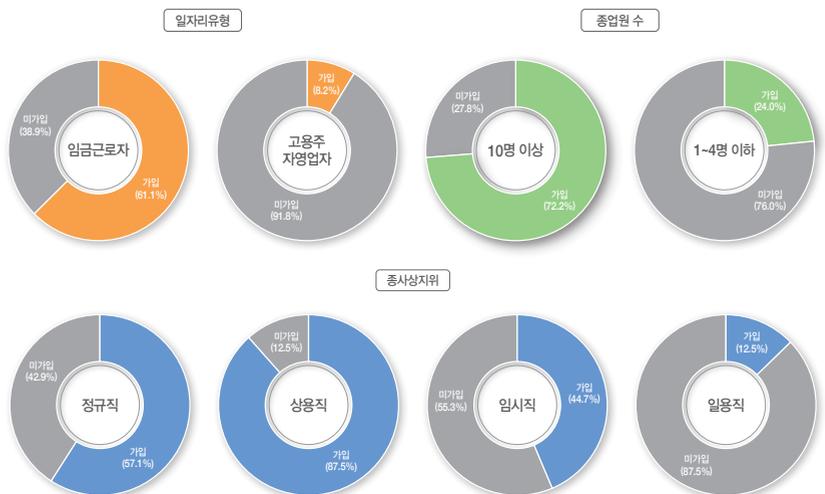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개인별 연간 입원일수·의료비·소득 수준 (2017)〉

● 입원 의료비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줌



●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체(1~4인) 종사자, 임시직·일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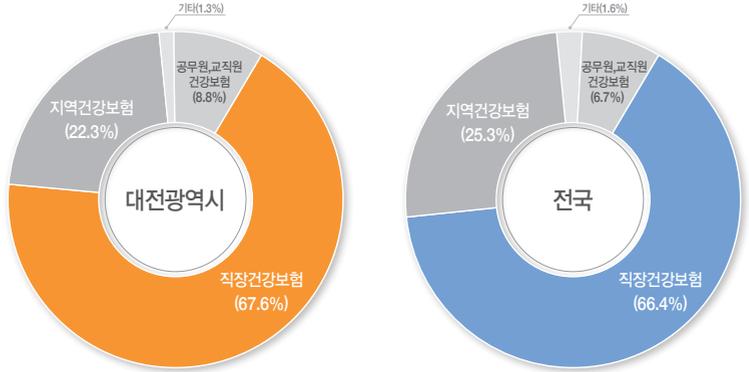
-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1.1% 이상으로 높지만, 자영업자는 91.8%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또한 1~4인 소규모사업체 종사자, 임시직·일용직에서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
-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보장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



〈대전광역시 산업재해보험 가입 비율 (2017)〉

• 의료보장형태는 대부분 직장건강보험

- 대전광역시와 전국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각각 67.6%, 6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역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는 전국보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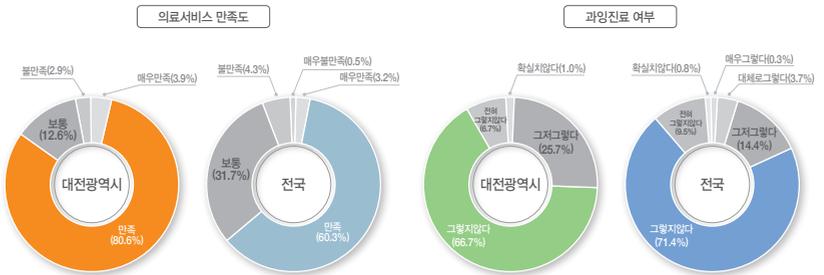
〈의료보장형태 (2017)〉

• 입원 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매우 높음

- 입원 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전국과 대전광역시 모두 높음
- 특히 대전광역시는 매우 만족을 포함한 만족도가 84.5%로 매우 높음

• 대체로 입원 시 과잉진료 정도가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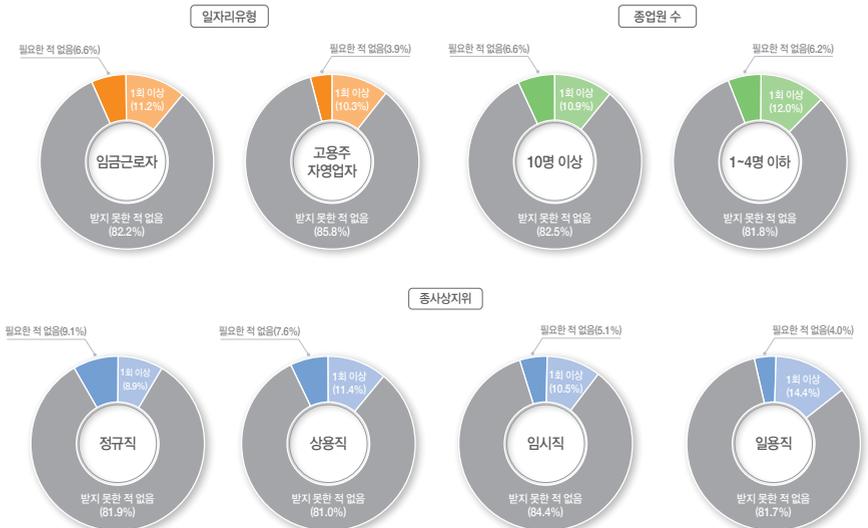
- 대전광역시의 경우 입원시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전국의 경우 4.0%로 매우 낮은 수준



〈입원 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과잉진료 여부 (2017)〉

• 저소득근로자의 미충족 의료경험률이 높음

-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1~4인의 소규모사업체 종사자나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주로 저소득 근로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국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경험률 (2017)〉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 8월 대전·세종 이슈 뉴스기사 분석

## ※ 지금 대전·세종은? 20.8.1- 8.27

###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많았던 8월의 대전

- 2020년 8월 1일부터 27일까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2,847개의 키워드를 분석
- 8월의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전히 코로나19가 큰 화두였으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로 인한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날씨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짐



**특별재난 지역지정**

- 재난 재해 안전지대라 여겼던 대전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
- 근본적인 호우 방재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짐
- 대전시는 동구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서구 정동동 일대를 자연재난위험지구 지정 추진
- 현재 동구 중앙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

**스테이 스트롱**

-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캠페인
- 코로나 19 극복에士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 3월 외교부가 시작
- 대전의 공공기관, 병원 등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함

**유성형 뉴딜**

- 유성군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 '유성형 5Green 뉴딜 계획'을 수립
- 공공기관의 제로에너지빌딩(Green Hall), 도시공간의 녹색전환(Green Zone) 지원소·보안형 에너지 확산(Green Wood), 전기차-수소차 그린 모빌리티 확대(Green Car) 친환경 저탄소 주거공간 조성(Green Home)의 5개 분야를 제시

순위	키워드	빈도(회)	키워드	관련성
1	코로나19	15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0.996
2	날씨	51	코로나19	0.731
3	태풍	33	날씨	0.509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1	코로나19 확진	0.369
5	코로나19 확진	8	스테이스트롱	0.295

(8월 대전광역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 ● "코로나19" 만큼 "행정수도 이전" 이 큰 화두였던 8월의 세종

- 2020년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828개의 키워드를 분석
- 8월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대상인 "코로나19" 만큼 "행정수도 이전"이 큰 화두였으며, 이와 더불어 세종시의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비중있게 다루어짐



**지역사회 건강조사**

- 세종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
- 조사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 이번 조사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됨

**상생형 문화거리**

- 세종시는 올해 상생형 문화거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솔동 노을3로 일대를 선정
- 이 사업은 거리를 매개로 지역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과 소통의 기회로, 시민들에게는 손쉽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향후 시민, 거리예술가, 문화기획자, 한솔동 상인들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해당 거리에 적합한 콘텐츠 구제와 예정

**세종 이전**

- 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다시 시작
-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수직 상승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갈론분박 상태이며, 올 하반기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순위	키워드	빈도(회)	키워드	관련성
1	행정수도	68	행정수도 완성	0.995
2	코로나19	42	부동산 소유권	0.498
3	행정수도 완성	16	혁신도시 활성화와 주변지역	0.448
4	세종 이전	9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0.448
5	부동산 소유권	5	세종 이전	0.398

(8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자료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인건강보합공단(2017), 「한국의료패널조사」,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인즈